

상반기 상위 10개사 수주비중 90% 넘어

기사입력 2012-09-27 07:00:06 |

폰트    

정책연, GDP 내 건설투자는 12%대 정체 전망

올해 상반기 해외수주액의 90% 이상을 상위 10개사가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'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 보고서'를 보면 상반기 해외수주액(321억달러)의 90.1%를 상위 10개사가 휩쓸었다.

이라크에서 매머드급 주택사업을 수확한 한화건설(77억달러)이 1위였고 현대건설(52억달러), 삼성엔지니어링(44억달러), GS건설(31억달러), 포스코건설(20억달러), 현대엔지니어링(16억달러), 대림산업(16억달러), 삼성물산(14억달러), 대우건설(11억달러), 두산중공업(8억달러)를 합쳐 상위 10대사의 강세가 뚜렷했다.

반면 10대사를 뺀 나머지 168개 해외수주 실적사는 건수(246건)만이 전체(298건)의 82.6%에 이를 뿐, 수주액(32억달러) 비중은 9.9%에 머물렀다.

해외건설협회가 산정한 중소건설사의 연간 해외수주액도 2007년과 2008년 67억달러와 72억달러에 달했지만 2010년과 작년에는 47억달러와 48억달러로 50% 가량 급감했다.

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국가가 2007년 60개국에서 작년 87개국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해외개척 노력은 치열했지만 결실은 기대 이하였다는 의미다.

해외수주액이 2007년 전년의 3배에 가까운 398억달러를 시작으로 고공행진을 했지만 실제 중소기업 실적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.

국내 사정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. 전체 건설수주액은 2007년을 정점으로 추세적 감소 흐름이 뚜렷하다.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수주가 줄었지만 해외수주가 급증했기 때문에 전체 수주총액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역을 뜯어보면 중소기업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다.

실행률 압박에 의한 수익성 악화는 중소기업에 더 힘들게 하고 있다.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국내 건설사의 공공공사 실행률 평균은 102.5%로 투입비용이 원가를 2.5% 초과했기 때문이다. 건설사의 영업이익률과 완성공사 이윤율도 2007년 6.4%와 8.3%에서 작년 4.1%와 2.2%로 추락했다.

유일한 연구위원은 “중소업체 사정은 안팎의 수주 이중고에 적자시공 우려마저 고조되는 위기”라고 진단했다.

실제 전문건설업계의 작년 건설공사 계약액(70조9908억원)도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(-5.0%)로 돌아섰다.

향후 건설투자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. 1980년대말까지 두자릿수였던 국내 건설투자는 2000~2011년까지 평균 1.37%에 그쳤고 2005년부터 7년간 연평균 건설투자는 -1.06%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.

연구원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향후 GDP(국내 총생산) 대비 건설투자 비중(작년 13.5%)이 2015년 12.9%, 2020년 12.8%로 12%대에서 정체할 것으로 내다봤다. 건설경기가 성장기(1970~2000년), 성숙기(2001~2011년)를 지나 완전한 정체·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.

유 연구위원은 “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이끌어내려면 적정공사비 확보, 거래질서의 투명·공정화, 파트너링 촉진 등의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”며 “또 해외시장만이 대안이라면 시장개척, 수주활동 지원 등의 현 수준을 뛰어넘는 획기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